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최종 확정

순창군, 2023년 300억 투입... 미래발전 전략 힘 실릴 듯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최종 선정은 그동안 순창군이

장류를 토대로 관련성이 높은 발효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군은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최종대상자로 선정됐다.

발효분야 선점을 위해 발효테마파크와 연구소 및 산업화 시설구축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지난해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80억원)에 이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군의 미래 발전전략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2007년부터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 장내 미생물을 난치성 장질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등 미래 발전분야가 높은 점도 이번 사업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확정은 지난해 선정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과 함께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을 이끌어 갈 생두마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순창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발효미생물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을 세계적인 미생물산업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 민 군수, 주민중심형 홍보 필요성 강조

심민 임실군수는 4일 "군정 주요현안이나 사업들에 대해 군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주민중심형 홍보강화를 적극 강조했다.

사업들은 정확하게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원조회에서 심 군수는 군정 홍보 강화를 비롯하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과 적기 영농준비, 봄철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2019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심 군수는 "위기를 접한 국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생명을 지켜주어 국민들로부터 칭송과 함께 임실군의 위상을 높여준 김진환 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또한 임실군을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한 홍보유공 직원들도 애써주시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또한 심 군수는 "민생 현장방문서 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각종 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해빙기를 맞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업농촌 발전 선도 농업인 중점 육성

순창군이 4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9년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식을 갖고 핵심인력 육성에 본격 나섰다.

내용으로 진행해 핵심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은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이라며 "개강한 혁신대학은 변화하는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케팅 기법부터 친환경 농업 기법 등 실무분야까지 숙달할 수 있는 교육인 만큼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위해 진행되는 농촌인력 양성 교육이다. 전국의 농업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36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농산물마케팅, 농촌체험관광, 리더십 등 군 지역 농업 및 농가들의 6차산업화 발전과 관련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임실군 '꼬마배나무이' 적기 방제에 나서

임실군이 명품 배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배 농가 골치거리인 '꼬마배나무이' 적기방제 현장지도에 나섰다

월동한 꼬마배나무이는 2월 1일부터 일일 최고온도 6℃ 이상인 날이 16일 이상이면 전체 밀도의 약 80%가 배나무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이동한 후에는 약제방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시기에 기계유 유제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

임실군은 방제적기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라고 판단해 집중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관심"

남원시, 3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

남원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3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원 모두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살맛나는 천년남원 건설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역자금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발행하는 남원사랑상품권의 성공여부는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전 직원이 가맹점 모집과 지역주민 홍보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부실공사와 민원발생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실망나는 천년남원 건설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3월은 부처님 오신날 반영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북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별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풍성한 결실을 맺자"고 강조했다. "사고는 휴일이 없어 해방기에는 군열·붕괴·낙석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해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다른 애항심으로 다방면에서 시청 발전에 기여한 시민 4명(신봉현 초록건축사 무소 소장, 최재우 새남원라이온 클럽 회장, 남숙자 도통동 통장, 김의영 남원시 시니어클럽 전담인력)와 공무원 7명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연금 설명회 개최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4일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관내 노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농지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2011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종신형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증가하는 가입자는 2018년말 기준 가입수가 1만1283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2019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 보다 월 연금액을 최대 20.6%까지 더 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남원지사에서는 개편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요건과 사업별 혜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령연회, 이농·전업 희망농가에 대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전화(063-620-2080~2)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가축분뇨 액비화 추진

남원시는 올해 7억8천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을 해소하고 우량액비를 생산해 경·축농가의 상생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액비살포 전 토양 성분분석, 시비처방 및 부속도 판정, 액비반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냄새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액비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경종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동자원화 1개소, 액비유통센터 3개소, 액비살포면적 1,000ha 등을 지원했다.

특히, 남원시는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해 연간 17억원의 경종농가 실질소득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순창애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박홍근 감사실장이 이환주 시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

남원시 박홍근 감사실장,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남원시 박홍근 감사실장이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에서 이환주 시장으로부터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

박홍근 실장은 19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감사실장,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특히, 총무과장으로 재직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지역주민 등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

통행정 추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혁신 읍면동 임팩트사업 추진, 출향인 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구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박홍근 실장은 수상소감에서 "말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 동안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동료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앞으로 진철하고 살맛나는 천년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